

한일 복원 '새 초조대장경' 이운

고려대장경연구·대구시 초조대장경 이운식

"초조대장경은 다시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대구에 봉안된 초조대장경의 귀향을 공식 선언합니다."

1000년 전 고려 수도 개경에서 만들어져 대구 팔공산 부인사로 옮겨졌던 고려 초조대장경 이운이 대구 도심에서 최초로 재연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와 대구시는 11월 17일 국제보상기념공원을 출발해 대구백화점 야외공연장에 이르는 1km 구간에서 초조대장경 이운퍼레이드를 개최했다.

대구시와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60억 원을 들여 초조대장경을 복원·간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초조대장경은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됐으나 1232년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된 바 있다. 이날 이운된 대장경은 한일 공동 복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간행본이다. 이운행렬은 취타대를 선두로 대형 초조대장경 복간본이미지와 오방불변과 용정자, 접레자, 등을 담은 깃발 등을 선보였으며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등집을 지고 경관을 이운하던 옛 모습도 그대로 재연했다.

이운퍼레이드에 이어 대구백화점 야외공연장에서는 이운 기념식과 초조대장경 복간본 전시, 탁본 체험행사 등도 열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11월 17일 1000여 대구 시민들은 초조대장경을 상징하는 부채를 들고 당시 이운행렬을 재연했다.

대구 부인사 봉안 재현 5년간 60억 들여 복원 간행

이날 행사는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원년인 2012년을 회향하며 남은 복원사업의 원만 회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복원간행을 맡은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 분사인 동화사, 대구시가 힘을 모았다.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통합을 이끈 초조대장경의 정신을 계승하자"며 "이운행사를 계기로 대구시민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 상생하는 삶이 올 수 있다"며

"대장경에 담긴 화합의 정신을 읽고 국민대통합의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일 공동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원회 위원장 종립 스님은 "국민통합은 고려가 대장경이라는 국책사업을 통해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며 "복원간행이 완료돼 많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려대장경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은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의 원년의 해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국내와 일본 남선사 등에서 대장경을 발굴, 복원해 왔다. 연구소는 1960년대 일본에서 발견된 초조대장경과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발굴된 초조대장경을 분석해 2004부터 2009년까지 디지털 전산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10년부터는 대구시와 함께 인경본 240권을 복원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불교대중화에 최선 다할 터"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이취임법회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에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이 취임했다. 창립 6주년을 맞는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11월 20일 롯데호텔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이취임법회를 갖고 새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허남식 부산시장, 시의회 김석조 의장, 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이진복 새누리당 시당위원장과 박민식 김영주 의원 등 35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박순곤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대중화를 위해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부산지역 불교계가 단합하여 타종교의 비방과 종교갈등에 대처하고 정법수호와 확산을 통해 불교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과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여 불교포럼이 부산불교뿐만 아니라 전국을 아우르는 불교중흥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부산지역의 법회를 갖고 새집행부를 출범시켰다.

11월 20일 부산 롯데호텔서 박순곤 신임 회장 취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역의 불자 명사들로 구성된 지역 불교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의 법사로 초청된 정관 대승사는 "자기 제도 자기 성찰"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회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불교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모연금액 1200만원을 24명의



취임사를 하는 박순곤 회장

학생에게 지급했다.

한편, 이번 부산불교지도자포럼 새 집행부는 △회장 박순곤 △수석부회장 김종백 △부회장 권정길 김수현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박영근 신재철 장인화 최삼섭 장석준 김승영 양재생 △사무총장 신상호 △재무총장 박치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혜숙 기자

상생의 정신 설치미술에 담아

선진스님 제8회 개인전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의 제8회 개인전이 대구 수성동 다미 갤러리에서 열렸다.

선진 스님은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8점의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스님은 작품을 통해 불교의 전통 불복장 의식을 현대의 시각언어와 접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선진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근원적인 물음에 세상만사 모든 것은 돌이 아닌 하나로 돌아가니 나와 너, 남과 북, 빈부, 좌우 계층의 분별심을 넘어 소통과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선진 스님은 법설 스님으로부터 불복장 의식을 전수받았으며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인전을 열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복장 의식을 재현한 선진 스님의 설치작품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대웅전 뒤를 살피는 마음

신도들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면서 현대의 사찰은 점차 대형화, 복합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예전의 사찰이 수행하고 기도하는 단순한 기능을 가졌다면, 오늘날의 사찰은 신도들에게 다양한 종교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종교 이외의 기능까지도 베풀어야 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산에 자리 잡은 현대의 전통사찰은 항상 공간부족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간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길은 건물을 더 짓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사찰의 공간적 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전통사찰의 경우 대부분의 사찰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제도적 구속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전통사찰은 이미 구조적 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건물을 덧붙이거나 규모를 크게 확장하는 것은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 그러다보니 사찰에서 당장 필요한 공간이 있어도 합부로 공간의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도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전각이나 담우의 처마 밑에 물건을 쌓아두기도 하고 누마루 아래 넣어두기도 하며, 심지어는 비닐이나 목재를 이용해서 조잡한 간이창고를

만들어 보관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물건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아예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낫겠지만, 보이는 곳에 방치되거나 간이창고 안에 보관된 물건들은 사찰의 청정환경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청정한 사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요즘은 사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스님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비우는 삶'을 산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듯도 하다. 비우는 마음이 있다면 사찰은 예전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덜 복잡할 수 있을 것이다. 작게 보면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을 것이며, 낭비되는 물건도 적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비우는 마음이야말로 사찰환경의 청정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제가 아닐까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웅전 후면부 처마 밑에 임시로 가설한 수납시설은 사찰의 청정환경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경상북도 보사찰



문수보살님 나투신 사자산! 약사여래 현신하신 사자산!!

사자산 사자암 배산

사자산, 사자암은

일 시 :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146

인연 대덕스님을 모시고 개원법회 봉행합니다

사자암에서는

매일 음력 1일 ~ 3일 : 화엄기도
매일 음력 8일 ~ 14일 : 약사7불진언 주력
매일 음력 15일 : 재수(건강)불공
매일 음력 24일 : 재수(사업)불공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사자암 암주 장원 합장

☎ 011-677-8525

공기 압축열 보일러

공기열 75% → 100%
전기 25% 에너지



자연요양병원에서 10kw 80평난방

연료비 걱정으로부터 완전 해방!!

획기적인 절감!! 편리하고 화재에 안전합니다. 일반 전기보일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루 1만원으로 50평 난방실현!
하루 2만원으로 100평 난방실현!

심야대비 50% | 도시가스, 전기보일러 대비 70% | 기름대비 80% 절감

초 록	소비전력	난방열량	월간 예상연료비 (단위:원)
압축열 보일러	5kw/h	난방 120㎡(약 4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13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200,000
압축열 보일러	7.5kw/h	난방 180㎡(약 6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0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300,000
압축열 보일러	10kw/h	난방 240㎡(약 80평)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270,000 ~ 하루 15시간 가동기준 400,000

최고의 기술력, 고객 만족
품질경영의 원칙과 철저한 A/S로
고객님께 "신뢰와 정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주)초록에너지

대표 전화 1666-7634